

2022-2 경주시 서부권역

시간이 넘나드는 우리 이웃
신관을 찾는 어려움 해결



경주문화재단 문화도시사업단



목차

02 프롤로그

모죽지랑가 패러디[시]_선혜영

화랑정신에 대한 재해석_선혜영

09 오늘의 화랑. 1

경주의 젊은 화랑 한주희

댄스컬-한주희의 공연무대를 보며[시]_선혜영

한주희, 그의 삶과 미래_선혜영

19 오늘의 화랑. 2

사라리 자유인 이채학

자유인 이채학_이영숙

철학감자_김종관

감자_김종관

30 오늘의 화랑. 3

복조리 전도사 김원생

행복을 나누는 신라의 후예_이영숙

복조리가 지니는 비밀[시]_선혜영

44 에필로그



모죽지랑가

득오 / 해석 양주동

간 봄 그리워하니

모든 것이 울게 하는 시름

아름다움 나타내신

모습이 주름살 지는구나

눈 돌릴 사이에

만나 봄을 이루리

낭이여 그리워 할 마음의 갈 길

다북쪽 마을에 잘 밤 있으리

화랑을 흠모하다

패러디 / 선혜영

세월의 결을 들춰보니

웃고 울게 하는 그들의 이야기

여기저기 깃들어 있는

지혜가 범상치 않구나

잊혀질까 두려워

다시 만나 마음에 두고

낭이여 그립고 그리워 다가가는 길

경주 곳곳에 영원히 남으리





화랑정신에 대한 재해석

/ 선혜영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화랑들의 이야기이다. 화랑이란 일종의 지도자계급이었다. 그런 점에서 ‘화랑정신’은 지도자가 갖춰야 하는 리더십에 관한 덕목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오늘의 시각에서 화랑, 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위세를 지구촌에 떨쳐줄 21세기에 걸맞은 뛰어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비추어 오늘의 화랑들을 찾아보자고 한다면 오징어 게임의 배우들이라든가 코리아문화를 널리 알리는 BTS도 화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인물들인 것 같다.

하지만 오늘날 지도자 개념은 과거와 다르다. 권위적 지배자가 백성들을 다스리는 모습이 아니며 더욱이 우리가 우러러보아야 하는 대상이 지도자인 것은 아니다. 지도자는 국민을 대신하여 어떤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국민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위임한 존재이다. 권위는 리더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사람들이 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21세기 화랑정신을 조금 더 확장해보고자 한다. 우리는 민주시민이며 누구나 다 인간으로서 존엄한 주체적 개인이며 자신의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설계하고 규정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 점에서 볼 때 화랑정신은 모든 개개인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개인주의가 세계적으로 만연해 있는 요즘, 그래도 아직 우리 사회는 공동체 의식이 살아남아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그는 화랑이다. 그렇다고 지도자는 화랑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다. 화랑이라면 그가 지도자이든 시민이든 그 정신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가까이서 볼 수 있으면서 지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개인들을 화랑, 이라고 재정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는 화랑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조명해보려 한다. 화랑정신이 극소수의 계급만이 소유할 수 있는 배타적 가치체계가 아니라면, 우리 이웃을, 우리 사회를 나아가 세상을 조금이나 바꿀 수 있는 마음가짐을 지닌 사람들이 바로 화랑이다.

오늘의 화랑. 1

한주희, 그의 삶과 미래



댄스컬

한주희의 공연무대를 보며 / 선혜영



하나의 언어엔
하나의 사실이, 존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마법을 부리기도 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비존재가
언어가 생겨나면서
친근한 존재로 거듭납니다

댄스컬도
같습니다.
청춘의 시대가 창출해내는
새로운 용어는
새 삶의 양식을
펼칩니다

언어와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사실의 소통
이것이 삶의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을 새롭게 기획하고 창조해냅니다

경주의 젊은 화랑 한주희 / 인터뷰 : 이영숙, 정리 : 선혜영

한주희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진지하게 선택하고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이 순간에도 달리고 있다. 그의 고향은 경주다. 경주의 에너지를 받아서인지 누구보다도 젊은 혈기 가득한 전문 예술가이다.

그는 고양이나 개 등 동물들을 좋아한다. 이따금 소리높여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활동적인 운동을 즐긴다. 영화도 좋아하는데 공포영화, 우주, SF 환타지물 등을 보며 간접 경험을 쌓는다. 마블 시리즈나 “인터스텔라”, “인시디어스” 시리즈가 기억에 남는다. 그는 오늘도 자신의 일에 열의를 놓치지 않은 채 살고 있다.

그의 전공은 실용무용이다. 특히 걸스힙합(Grils Hip Hop)과 방송댄스(K-Pop)가 그가 선호하는 분야이며 능력도 돋보이는 장르다. 서울 여성 댄스팀과 경주 여성 댄스팀 두 팀의 구성원으로 활동 중이다. 10여 년 넘게 초중고 및 기타 집단에서 다양한 K-POP 댄스 강의를 하고 있어 강사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걸그룹 가수 활동을 준비 중이다. 나아가 자신의 전공을 살린 댄스와 연극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댄스컬(춤+뮤지컬) 활동도 하고 있다.

또 행정적 업무인 경주 실용무용협회 부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자신의 일을 하면서 느끼는 좋은 점이 많다. 그는 댄스컬 행사에서 만나는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함께했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긴다. 다양한 캐릭터 탈을 쓰고 악성 바이러스를 무찌르는 액션을 보고 어린이들이 박수 치며 좋아하는 때가 가장 마음에 남는다. 어린이들이 공연을 관람하는 중 짓는 흥미진진한 표정에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의미를 재확인한다. 공연날이면 아침 일찍부터 학교 강당에 모여서 음향장비, 조명, 각종 소품들을 세팅하고 스탠바이 단계까지 긴장을 놓지 않는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후 공연을 하는데 그 무대를 초롱초롱한 눈으로 감상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에서 뿌듯함을 느낀다.

항상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무대공연을 위한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행사들과 함께 한다. 퍼포먼스만을 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 행사에서 동창회 행사나 지역 가수분들이 많이 출연하는 트로트 무대 백업 행사도 가는 때가 있다. 그 경우 자신의 또래와 세대차가 있어 거리감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여러 번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부담이 사라진다. 스태프분들, 놀러 오신 아주머니 아저씨 분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상대의 삶에 공감을 하고 세대를 넘어 하나가 된다. 동네 주민들이 공연자들에게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먹거리 등을

손에 쥐어 주시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시고 거리낌 없이 대해 주곤 한다. 그는 이러한 분위기가 지역행사의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는다. 미래를 향하여 비약을 꿈꾸며 자신의 인생에서 맞이할 수 있는 클라이맥스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두 가지의 프로젝트를 착수하고 있다.

그는 경주에서 예술인으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행사 등을 하면서 축적된 경험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고향 경주에서의 일도 놓칠 수 없는 역할이지만 좀 더 자신의 삶의 폭을 넓히고자 시도하고 있다. 서울과 경주를 오가며 팀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던 중 기회가 생겨 약 2년 동안 4인조 여성 걸 그룹을 창설, 활동준비를 했고 드디어 앨범 발매 직전 단계에 있다. 이번 활동이 그에게 무척 의미가 크다. 하나의 노래로 무대에서 공연하면서 이 사회에 자신의 노래를 남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 무척 설렌다. 지금까지의 무대와는 뭔가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는 기분이다.

다른 하나는 댄스컬이다. 댄스컬은 경주에서 3여 년 전부터 시작한 캐릭터 탈을 이용한 방식의 공연이다. 캐릭터 탈의 무한한 개성을 기본으로 연극을 하며 중간중간 신나는 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것이 이 무대의 매력이다. 처음엔 하나의 작품으로 시작했지

만 어느덧 새 작품을 준비하는 중에 있다. 최근 자신의 무대를 알아보고 관심을 가져주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상도 그를 충분히 고무시킨다.

이렇게 바쁜 중에도 그는 아카이브(유명했던 역사 및 자료 등을 보관, 저장해놓고 다시금 꺼내 재현하고 다시 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일)일인 문화탐사단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한다.

그는 문화탐사단 일을 지인의 추천으로 시작하였다. 이 일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경주에 있는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이야기 및 사진 등을 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기회가 아니며 자신에게 온 큰 행운이라 여긴다.

그는 어디서 활동을 하든 경주인이며 경주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내고자 한다. 경주에서 이 시대를 살아낸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경주는 자랑스러운 유산이다. 나아가 역사도 깊고 문화재도 많다. 물론 경주의 인구 감소 및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경주만큼 멋진 도시도 드물다. 천년의 고도로서 역사적 환경 및 쾌적한 자연환경은 조금은 부족한 부분을 모두 채워주고도 남는다. 혹시 문제가 있다면 경주인들이 힘을 합쳐 고민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해결해 나가면 된다. 그



는 경주를 개선하기 위한 일이 있다면 그 일에 도움을 주려는 적극적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다.

앞으로의 그의 삶을 기대해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미래는 현재로부터 가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좋아서 시작했던 예술(무용)의 길을 묵묵히 계속할 것이다. 그는 인생의 초반을 춤과 노래와 함께 지내왔다. 예술가의 길이 항상 쉽지 만은 않겠지만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것이다. ‘지금, 여기’인 ‘현재진행형’의 삶을 열정을 다해 살아갈 것이다.





오늘의 화랑. 2

사라리 자유인 이채학

자유인 이채학 / 이영숙

그는 아침마다 카톡을 보낸다. 그는 시 배달부이다. 사람들이 단 잠에 빠져있을 때 적지 않은 시를 단톡에 올린다. 시인들은 불가사 의한 이야기를 이 세상 물레에서 뽑아낸다. 그가 보낸 시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그 시가 연서라도 되는 양 들뜬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 한다. 이미 사그라져버렸다고 여겼던 불꽃이 척박한 세월의 대지를 박차고 올라 맑고 깨끗한 뭉게구름이 되어 하늘로 날아오른다.

날마다 배달되던 시가 하루라도 오지 않으면 친구들은 슬슬 걱정하기 시작한다. 혹시 전날 과음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겼나? 또 부정의에 욱하여 울분을 쏟아낸 탓에 지병이 도져 입원하지는 않았나?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이처럼 지인들에게 수많은 생각거리 를 심심찮게 던져준다.

어느 날 그는 지인들에게 하나의 제안을 했다. 이웃이 수확한 콩을 샀는데 메주를 만들고 된장을 함께 담가 보자고 했다. 지인들

은 아무도 된장을 담가본 적이 없으며 그 역시 된장 담그는 방법을 알 리 만무였다. 그와 지인들은 우선 감感으로 해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육십여 년을 된장국 및 된장찌개를 먹었으니 그 정도야 재현할 수 있으리라 자신만만했다. 물론 이면에는 온라인 검색이라는 그들만의 무기가 있었다.

그는 정년을 몇 년 앞두고 명예퇴직을 하였다. 그리고는 곧 농사꾼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 싶었던 것 같다. 어쩌면 어렸을 때 보고 자랐던 농촌의 삶이 그리웠을지도 모른다. 텃밭에 고추, 파, 배추를 심고 밭 가장자리에 각양각색의 예쁜 꽃들을 심었다. 그가 일구는 밭 가장자리에 피어난 빨강, 노랑 여러 가지 색깔의 꽃들이 벌과 나비를 부르듯, 그가 조성해놓은 개성적인 밭은 길가는 나그네의 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는 여러 가지 점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재주를 지니고 있다. 씨를 뿌리고 김을 매고 애써 기른 농작물들을 지인들과 나누었다. 농부가 물을 부지런히 주지 않아 푸성귀가 거칠다고 다른 이들이 농 삼아 타박을 해도 그는 얼굴 가득 함박 웃음을 지었다. 어쩌면 그의 넉넉한 마음 속에서 벌과 나비, 그리고 지인들 까지도 마음껏 뛰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밭일을 하면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무젓가락을 들

고서 하나하나 벌레를 잡는다. 그러면서도 사람이 먹으려는 욕심으로 벌레를 잡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한다. 짐작컨대 그럴 즈음 굽혔던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허허롭게 웃는 것도 같다. 아마도 그의 꿈은 사람도 벌레도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는 세상일 것이다.

물론 자연을 떠나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부조리에 대해 비분강개하기도 한다. 사회 정의의 구현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였던 누군가의 뜻을 현실에서 이루어보고 싶은 소망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는 근육질이 넘치거나 마초 같은 남성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을 밝고 환하게 밝힌다. 그 누구도 미워할 수 없는 맑은 심성을 지닌 그가 이 세상에 있기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어느 정도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지인들은 의심하지 않는다.

21세기 경주에 살고 있는 그가 있어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는다.

철학 감자 / 김종관

경주 사는 내 친구가 감자를 보내왔습니다. 꽤 알이 굵직굵직한 게, 받을 때부터 묘한 즐거움이 있었지요.

친구는 초저녁에 일찍 잠이 들었다가 새벽 두세 시면 일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맷돌 커피 한 잔에 담배 한 개비가 텃밭으로 나가는 철학자 농군의 예열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시각쯤이면 감자 넝쿨도, 이미 저 동해 바다 건
너 움트기 시작하는 여명을 감지하고 기지개를 켜면서 땅속 씨알
들을 다독일 테지요.

평생 書生이던 벗이 널찍한 텃밭을 누리는 데에는 여러 함의가
있을 겁니다.

누구나 갖는 낭만적 사치 조금,
이분법적 인간사로부터의 도피도 약간,
부실해진 자기 건강 처방전으로서의 기대 심리도 더러.

하지만 무엇보다도
칸트의 오후 산책길마냥
철학자의 철학 마당이겠지요.

친구는 내게 "내 생각이 영근 감자"라고 이름하였으니까요.
나는 이 말이 너무 멋져서 며느리에게 가장 굵은 것들을 골라 나
눠주었습니다.

물론 "철학자의 철학 감자"라고 이름 붙이는 걸 잊지 않았지요.

그 아이도 그 이름이 멋지다고 하더군요.



여하튼 그래서인가요? 감자는 참 맛이 좋았습니다. 특히 식은 감자의 쫄깃함은 일품이었습니다. 친구는 잘 삶아낸 아내 덕일 거라며 겸손해했지만, 난 일찍이 감자 맛에 좀 떨떠름한 편이지요.

예닐곱 살 무렵 부모님과 떨어져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집 텃밭도 널찍했지요. 할머니께서는 따로 떨어진 손주 녀석 생각하신다면, 감자와 토마토를 심으셔서는 간식으로 주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60년대의 감자와 토마토에서는 독특하고 벼거운 향내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대문을 열면 제일 먼저 달려드는 게 그 냄새였지요.

방학이 되면 직업 군인이셨던 아버지께 갔는데, 강원도 산골엔 감자 전분을 만드는 항아리들이 골짜기에 드문드문 있어 산속이 온통 감자 썩는 냄새로 진동했으니까요.

나중에 알았지만 어떤 성분(용어는 잊었다)이 있었는데,

지금은 품종 개량으로 그 향내를 제거했답니다. 어릴 때의 그 추억 탓인지 지금도 냉큼 감자로 손이 가지 않습니다. 토마토도 마찬

가지구요. 아직도 그 냄새가 나는 듯하거든요.

그러던 갑자가 달라졌지요. 친구의 갑자는 情이 엉기고 철학이 영글어서인가요? 맛난 것이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아홉 개를 먹어치우곤 끼니를 때웠지 뭡니까.

유별난 것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 자주 만나진 못하나, 어쩌다 만나면 설핏 피워내는 미소가 속내를 짐작케 하는 친구입니다. 몇 날 통화를 하지 못하면 내가 먼저 번호를 누르지요. 친구는 남말 듣기를 잘 견뎌내고, 나는 말하기 좋아하니 그럴 수밖에요.

나는 갑자든 고구마든 푸성귀든 친구의 내년 수학을 또 기다리렵니다.

철학자 친구의 텃밭 생산물에 이름을 붙이는 재미가 쏠쏠하리란 것이 기다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내 자식에게 아빠의 친구를 말하는 유쾌함도 이유가 되겠지요? 손주가 제법 말귀를 알아들을 때까지 친구도 나도 잘 살아가면서 이름 붙인 먹을거리를 줄 수 있으면 늙는 즐거움도 있겠다 싶습니다.

감자 / 김종관

벗이 봄볕을 감내하며 텃밭에서 키운 감자를 보내왔습니다. 큰 상자에 알알을 꾹꾹 눌러담은 마음이 듬뿍 내게 왔습니다. 벗은 예년보다 감자알이 잘아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지만, 나는 크기와는 이미 상관없었습니다.

아내는 상자를 풀자마자 그늘에 펼쳐 말리고, 한 종지기 넘는 감자를 삶았습니다. 역시 작년 감자맛 그대로였습니다. 식은 감자맛은 쫄깃하니 달기도 했지요.

아들 내외에게도 맛보이고 싶어 벌써 안달이 납니다. 아들에게 아빠의 벗이 농사 지은 감자를 준다니 참 흐뭇합니다. 어쩌면 내가 지은 것보다 더 풍성한 이야기를 일굴 수 있다 생각하니까요.

이번 주 아들네 절친들이 모인다던데, "감자" 자랑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내 친구는 말합니다. 나누는 재미로 텃밭 농사를 짓는다고. 감자 캐는 날은 가까운 이들 몇몇이서 땀을 흘리며 울력을 하고 가져갈 만큼 가져간답니다.

멀리 떨어져 받아먹기만 하는 나는 그 장면을 그려봅니다.

만약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갑자 캐기는 뒷전이고, 사람들 풍경을 바라만 보며 빙긋대다가 옆 사람 눈쌀을 찌푸리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곤 내 뜻은 욕심 사납게 챙겼을지도 모르지요. 그다지 감자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벗이 보내온 작년 감자맛을 잊지 않고 있으니까요.

친구와 나는 올 5월 초 이후 우울합니다. 둘 다 이유있는 쓸쓸함으로 '대처에 숨어 살고 있다' 고 말할 수 있지요.

친구는 세상을 잊고 상념들을 묻은 텃밭을 가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 감자는 벗 가슴으로 키운 것입니다. 나는내 친구의 가슴 거름으로 자란 감자를 먹습니다. 내가 맛있게 먹는 감자에는 먹먹함이 씹힙니다.

늙어가면서 이토록 절절한 벗이 있음에 난 우쭐합니다. 다행히 벗은 묵묵히 걸맞지 않은 날 받아주니 고맙고 고맙습니다.제발 내년엔 기쁨이 뚝뚝 묻어나는 감자를 보내라고 말하렵니다. 염치없이 받을 궁리만 한다고 편잔할지도 모르지만, 벗에겐 모른 채 주문합니다. 어린 시절을 형제처럼 지낸 농사꾼 사촌도 있지만, 그분께는 그럴 엄두가 나지 않지요. 허나 내 친구에게는 내년, 내후

년 쭉 보내라고 말하렵니다.

초여름 늦은 밤 부슬비가 부실부실 내립니다. 어느 누군가 날 해 코지 하는 양 심사가 편치 않은 요즘, 감자는 빗줄기마저 다습게 합니다. 초여름인데도 가끔씩 오솔오솔 한기가 느껴지거든요. 내 친구가 오랫동안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그냥 전화를 해 보렵니다.



오늘의 화랑. 3

복조리 전도사 김원생

■ 행복을 나누는 신라의 후예 / 이영숙

부운지는 선덕여왕이 다녀갔다는 전설로 유명하다.

구름이 떠다니는 연못, 이라는 의미만으로도 색다른 공간이다. 그곳을 산책하던 중 정자에 앉아 계시는 할아버지 한 분을 보았다. 할아버지는 적요한 부운지를 응시하며 작고 예쁜 복조리를 만들고 계셨다.

그 장면은 머릿속에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털 속한 듯 평화로운 표정으로 부운지의 정자를 지키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다.

그 정자의 상단부에는 그가 새겼다는 부운정 浮雲亭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

무엇을 만드시는지요?

갑자기 침묵을 깨뜨리는 낯선 이의 목소리에도 전혀 낯을 가리지



않는 할아버지의 대답은 그 안에 세상에 대한 믿음이 가득하여 마음을 편하게 하는 마법을 지녔다.

버려지는 구리로 복조리를 만들어요.

복조리를 만들어 어디에 쓰시는지요?

이웃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신박한 말씀에 놀라워 가까이 다가간다. 짧지 않은 시간에 작고 긴 모양의 구리줄을 구부리고 엮어내고 하는 모습이 무척 진지하였다. 그의 자세에 힘입은 양 부운지의 연꽃은 천년을 이어온 조상의 맹시를 한껏 드러내고 있었다.

부운지의 연꽃은 사람들이 조성한 인공 단지가 아니라 저수지를 만드느라 땅을 파내던 중 드러난 늪에서 나온 씨앗이 발아되어 조성된 자생적 연꽃 단지로 유명하다. 오랜 옛날 언젠가 개흙(뻘) 안에 묻힌 채 세상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기회를 맞이하여 환생한 꽃이다. 그래서 그런지 부운지의 꽃은 다른 어느 곳보다 귀하고 아름답다.

무더위가 아직 가시지는 않았지만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산보하

기애 적당한 날씨였다. 연못을 한 바퀴 돌아서 나오는데 그 분이 불러세웠다. 할아버지가 그동안 만든 조리들을 가리키며

마음에 드는 것 가져가세요. 차창 앞에 매달아 두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덕담도 잊지 않는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삶의 방식에서 모죽지 랑가에서 나오는 죽지랑의 기운을 느꼈다. 죽지랑에 대해 전해온 이야기가 할아버지의 삶과 겹친다.

득오는 죽지랑이 단장으로 있는 화랑무리에 속해 있는 화랑이었다. 열흘 넘게 아무 연락없이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죽지랑은 득 오의 안부가 궁금해졌다. 사유를 알아보던 중 득오의 어머니로부터 군역으로 차출되어갔다는 소식을 듣는다. 죽지랑은 그의 상황을 확인하고 위문하기 위하여 지금 부운지 방향으로 바라다보이는 부산성을 찾았다. 득오를 위하여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고 며칠 만이라도 휴가를 얻어주기 위한 죽지랑의 배려였다. 득오를 만났지만 그 집단의 지도자의 거절로 무리들과 함께 되돌아올 수 없었다. 죽지랑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았지만 결국 득오는 혼자 남게 되었다. 하지만 득오는 죽지랑의 노력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단원에 대한 죽지랑의 이러한 관심과 애정을 득오는 가슴 깊이 간직했고 고마워 했다.



세월이 흘러 죽지랑이 세상을 떠났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득오는 자신이 고난에 직면했을 당시 한걸음에 달려와 은혜를 베풀었던 죽지랑을 그리워하며 슬퍼했다. 그때 득오가 향가를 지었는데 그것이 모죽지랑가이다. 부운지에서 복조리를 만들어서였을까. 나눔을 실천하는 할아버지는 옛날 화랑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 다시 할아버지를 찾아 부운지로 발길을 옮겼다. 틀림없이 정자에 앉아 계실 줄 알았던 할아버지는 그날 보이지 않았다. 정자는 주인을 잃은 것처럼 공허해 보였다. 그분을 다

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우려했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마을 아저씨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다. 곧 전화 통화가 되었고 얼마 기다리지 않아 그분이 도착하셨다.

할아버지는 경주 토박이로 경주에서 초중고를 다니시고 성장한 후 고향을 떠나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셨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 결혼을 했고, 자녀를 두셨다. 부산에서 퇴직을 한 후 고향에 사시던 손위 누이가 그를 다시 부른 게 경주에 다시 거주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누이는 혈육이 모여 같이 살자고 했고 경주시 서면 운대리 부운지 근처에 정착하였다. 그 후 누이도 세상을 떠나고 홀로 빈집을 지키며 지금까지 살고 계신다.





浮雲池

구름이 떠다니는 연못

Shyueung 2022.02.10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을 향해 풍겨나오는 모습이 속세를 초탈한 듯하시다. 말씀으로는 소일거리로 복조리를 만든다고 하시지만 복조리를 만드는 일이 도를 닦는 행위이리라. 알고 보니 복조리 제작자로 이미 매스컴을 탔다고 하신다.

그 말을 전하면서도 자신의 일이 아니라 3자의 입장에서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그의 손을 거쳐 완성된 복조리는 이웃들, 지인들의 손으로 돌아가 작은 기쁨과 더불어 살아가는 연대감을 함께 주었을 것이다.

할아버지의 집 대문은 파란색이다. 파랑은 사람들에게 밝은 미래를 준다. 복조리 나눔 활동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나눠주시는 듯하다. 할아버지 집으로 들어서니 또 다른 세계가 펼쳐 있다. 텃밭에는 상추가 자라고 깻단은 가을햇살에 말라가고 있다. 할아버지는 복조리를 만드는 중에도 자신만의 작은 텃밭을 일구고 있었다.

조심스레 한 발자국 내디뎌 실내로 들어서니 복조리 제작을 위한 작업실이 펼쳐져 있다. 방에는 구리로 만든 소품들이 구석구석 쌓여서 할아버지의 일상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구리로 만드는 것은 복조리만이 아니었다. 냄비 받침. 작은 장난감 등이 양증맞게 여기저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벽에는 갈대로 만든 빗자루

가 걸려 있었다. 빗자루를 만들어 마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했는데 추석 때 코로나를 앓으시는 바람에 목표로 잡은 수량을 못 맞추어 아쉽다고 하신다.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도 연신 손을 움직이신다. 연세가 88세임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은 젊은이처럼 능숙하다. 어느새 구리를 잡는가 했더니 똑딱 복조리 하나가 만들어진다. 신기하게 여기며 따라해 보지만 쉽지 않다.

그 때 전화벨 소리가 들렸다. 헌 텔레비전을 갖다주겠다는 전화다. 복조리를 만들기 위한 재료는 구리이다. 이것은 예전 TV 본체에 들어있다. TV를 분해하면 나오는 구리로 복조리를 만드는 데 이제는 구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간혹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구해 주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재료가 없어서 이 일을 그만 둘 수밖에 없는 없을지도 모른다고 하신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데 빗자루와 복조리를 주신다. 뒤가 불룩한 구형 텔레비전을 구해 할아버지가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널리 소문을 내어야겠다는 마음이 앞선다. 마을회관에 가신다면 자전거를 보조 보행기인 양 밀고 가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은 서쪽으로 지는 노을처럼 따스하다.



부을리 길자 (복조리 길아마자)

Shyoung 2022/10/25



복조리가 지니는 비밀

/ 선혜영

여기 |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가늘고 짧은 구리선들을 구부리고 접습니다.

그의 움직임에 따라

형형색색의 복조리가 생겨납니다

작은 복조리 마디마디에

열의가

소망이

미래가

있습니다.



그 기운이 마을로 스며들고
 경주로 길을 터가나 했더니
 부운지에 피어난 연꽃의 향기를 타고
 방방곡곡으로
 세월을 넘나들어

사람과 사람을
 시대와 시대를
 부분과 전체를
 하나로 아우릅니다



에필로그

사람들은 가까이 있다.

한 사람은 삶을 춤으로 형상화한다. 한 사람은 자연 속에서 스스로를 꽂피운다. 한 사람은 복조리를 만들어 이웃에게 선물한다. 그들의 삶에서 신라의 향가가 떠오른다. 죽지랑을 기리며 득오가 지은 모죽지랑가이다. 오랜 세월에 걸쳐 전해온 이야기 속 주인공처럼 오늘날도 사람들은 춤, 노동, 기술 등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며 그 맥을 이어간다. / 이영숙

이렇게 두 번째 매거진이 마무리 되었네요.

처음엔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하나하나 마주치다 보니 어느덧 끝이 왔군요!! 제가 태어나서 자란 이곳 경주를 소재로 한 매거진 제작에 참여할 수 있어 남다른 시간이었습니다. ㅎ ㅎ

경주 문화재단 탐사단 관계자 분들 감사드리구요.
함께한 서부권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한주희

시간이 흐른다고요? 시간은 머물러 있고 우리가 가는 거랍니다. 라는 말의 의미를 새겨보았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내가 가기 위해서는 어떤 길들이 있을 수 있을까, 찾고자 했던 날들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 선혜영



경주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아카이빙 프로젝트 <문화도시 탐사단>' 활동 결과물로
해당 저작권은 경주문화재단 문화도시사업단 및 문화도시 탐사단에게 있습니다.